

테마칼럼

여성세계

정치브리핑

경제의 눈

문화향기

인구변화 못 따라가는 주택시장



이상영

〈부동산114 대표이사〉

“

주택의 증가속도가 가구증가보다 빨라서 주택보급률은 개선되었지만, 아직 가구수에 비해 주택공급은 더 필요한 상황이다.

”

2000년 이후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큰 변화를 가져온 다양한 경제적 변수들이 있지만, 주택시장을 근본적으로 좌우하는 요인으로는 인구구조의 변동을 들 수 있다.

최근 발표된 2005년 인구주택센서스 결과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 인구증가율은 현저하게 떨어져서 총인구는 2.5% 증가에 그쳤다.

이에 비해 총가구수는 1천598만 8천가구로 11.1%나 증가해서 가구증가 속도가 인구증가 속도를 훨씬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주택의 증가속도가 가구증가보다 빨라서 주택보급률은 개선되었지만, 아직 가구수에 비해 주택공급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급속한 고령화에 적응 더더

그런데 주택문제에서 총량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인구구조의 변화를 주택시장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많이 있다.

첫째,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에 비해 주택시장의 적응이 더디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계층이 전체 인구의 9.3%에 달하고, 지난 5년간 이들 계층이 무려 29.5%나 증가하였다.

고령인구가 많아진다는 점은 사회적으로 부양능력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도 있지만, 주택

기능의 측면에서 고령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갖춘 주택의 필요성이 커지는 것이다.

둘째, 핵가족화의 진행 속도가 빨라지면서 평형 구성이나 평면 구조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는 점이다.

평균가구원수는 2.88명으로 3명 이하로 떨어진 상태인데, 가구당 사용하는 방수는 3.4개에서 3.6개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원수는 줄어들지만 가구원당 소비하는 방수는 많아지는 방향으로 수요패턴이 변해가는 것이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인 현재의 40~50대가 향후 10년에서 15년 정도는 주택수요나 주거소비면적 증가에 기여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주택수의 증가와 주택의 대형화 추세가 반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1인 가구의 급증으로 인해 1인 가구가 선호하는 다세대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1인 가구는 지난 5년간 42.5%나 증가하였고, 도시 지역에서는 30~40대 연령층에서, 농촌에서는 70대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에 맞는 새로운 주택유형의 공급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넷째, 지역간 인구이동에 따른 격차가 심화되면서 주택시장의 부침이 일어난다는 점이다. 가구 수 증가가 가장 빠른 경기도는 지난 5년간

24.7%나 증가했고, 충청권이 그 뒤를 이었다. 사실상 수도권과 충청권이 가구 증가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호남지역은 광주광역시 제외하면, 거의 증가가 없었다. 이러한 지역간 가구 증감의 차이는 지역 간 부동산가격 변동에도 격차를 낳게 된다. 여기에 교육이나 사회 인프라 등에 따라 지역 내에서도 격차는 심화되게 된다.

지역간 부동산 값 변동 격차

마지막으로 자가 주택 소유가 55.6%로 2000년에 비해 107만 5천 가구나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나머지는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다. 더욱이 이들 임차가구의 경우 전세가 감소하고, 월세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세는 5년 전에 비해 12%나 감소해서 355만 7천 가구였지만, 월세는 42.5%가 증가하여 301만 2천 가구로 전세가구수에 근접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 월세는 보증부 월세로 전세와 혼합된 형태가 많기는 하지만, 월세 가구의 증가는 과거보다 주거비 부담이 높은 임차계층이 많아진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강 대표 호남사과,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10일 광주에서 취임 1개월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나라당의 전진정당 시절부터 최근 광명시장 호남 비하 발언까지 호남분들을 섬세하게 해드렸던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호남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고 싶고 호남의 품에 안기고 싶다”라고도 했다.

강 대표의 이날 발언은 한나라당 차원에서, 그것도 특정 개인이 아닌 호남 지역을 대상으로 한 첫 공식사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실 호남차별은 근대화 시절부터 지난 80년 5·18에 이르기까지 영남 출신 정치인들이 정권유지를 위한 정략적 차원에서 이뤄졌고, 이것이 망국적인 지역감정으로까지 비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영남을 지역 기반으로 한 정당대표가 결자해지의 입장에서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 공식사과를 한 점은 진일보한 행동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싶다.

하지만, 강 대표의 사과는 그동안 영남 중심의 군사정권이 호남인에게 남겨준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감안하면 너무 미미하고 형식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강 대표의 이날 발언에는 호남 지역 낙후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이나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청사진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이번 대 호남 사과가 내년 대선을 겨냥한 정략적인 일회성 이벤트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구심을 해소하려면 호남 현안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등 실천적 모습이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기록권을 지키기 위해 지역감정을 정치인을 몰갈이하는 등 대대적인 인적 쇄신도 단행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호남의 품에 안기기를 원한다면 지난 과거에 대한 참회와 함께 전국 정당으로서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는 한나라당의 향후 행보를 눈여겨 지켜볼 것이다.

예상 밖 금리인상 경기에 부담 안줘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콜금리를 연 4.25%에서 4.50%로 0.25%포인트 전격 인상했다. 경기가 조금 위축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물가상승 압력을 잠재우기 위한 선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각종 대외여건은 금리인상에 부정적인 모습이다. 우선 2·4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GDP)의 전분기 대비 증가율은 5분기 만에 최저인 0.8%에 그쳤다. 더욱이 통계청의 6월 산업활동동향에서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의 전년동월비는 무려 5개월째 하락했다. 또 소비자대지수까지 18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최근의 각종 경제지표는 어두운 양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은이 과감하게 금리를 인상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금리 인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경기 둔화세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금리가 오르면 일반 시

중은행의 금리도 오르게 돼 기업이나 일반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특히 빚을 진 시민 계층을 더욱으로 몰아넣게 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한은으로서는 연말말 예상되는 물가상승에 대응할 필요도 있었고 경기 둔화세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금리 인상이 더욱 어렵게 된다는 현실적 어려움도 생각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물가나 향후 경제운용에 대한 대응책 마련보다는 경기를 관리하는 일이 더 시급하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현재 실물경기는 한은이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한은은 몇몇 현장에서 “한은이 실물 흐름에 대해 좀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목소리가 왜 높아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정부도 이번 금리인상이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지난해 개봉된 영화 중 ‘노스 컨트리’(North Country)가 있었다. 줄거리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첫 번째 소송인 1984년 미국 ‘젠슨 대 에벨레쓰 광산’(Jenson vs. Eveleth Mines) 사건을 다룬 것이다.

고백컨대, 이 영화를 눈길을 돌린 건 주연을 맡은 샤를리즈 테론(Charlize Theron) 때문이었다. ‘액션도 색시하게’ 연기한다는 남아 프리카공화국 출신의 여우(女優)는 갓서른을 넘긴 미혼이다. 조각 같은 얼굴, 금발에 푸른 눈, 신화(神話)에서 빠져나온 듯한 이미지는 또 어떤가.

〈결혼생활에 실패한 조시 에임즈는 두 아이들을 데리고 고향인 북부 미네소타로 돌아온다. 생계를 위해 일거리를 찾던 그녀는 마을의 철광에 광부로 취직한다. 허리가 휘 듯한 노동보다는 그녀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남자 광부들이 시시때때로 행하는 모욕적 성희롱이다. 조시는 이런 부담에 맞서기로 결심하지만, 동료와 아버지조차도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우려한다.〉 하지만 영화는 시작과 동시에 출연자들의 외모가 아닌, 당시 현장 상황으로 관객을 흡인시킨다. 광부자들은 ‘관객들의 마음을 찢어지게 하고, 격분하게 한 작품’이라고 호평했다. ‘희생양으로 남기보다는 굳건히 맞서기를 원하는 여성들에 대한 감동적인 초상화’라는 평가도 나왔다.

‘노스 컨트리’



광주지방노동청이 최근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 아직 ‘노스 컨트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설문에서, 여성의 35.3%는 “경미한 성희롱도 사법처리해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남성에 비해’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이유도 ‘사회의 편견 때문’이라고 답했다. 반면 남성들은 여성 광에 광부로 취직한다. 허리가 휘 듯한 노동보다는 그녀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남자 광부들이 시시때때로 행하는 모욕적 성희롱이다. 조시는 이런 부담에 맞서기로 결심하지만, 동료와 아버지조차도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미국과 달리, 이 영화가 국내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한 이유는 조금은 알 것 같다. /정기태 사회1부장 meonsan@kwangju.co.kr

의료 칼럼

김성주



본격적인 여름으로 무더위와 열대야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날씨가 폭폭 짜는데다가 방학도 해서 그런지 더위를 피해 풀장으로 인파가 몰려들고 있다. 그리고 매년 여름, 안과는 비슷비슷한 질환의 환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특히 방학·휴가와 관계돼 발생하거나 전염되는 경우가 많다. 여름철엔 날이 덥고 습해 눈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서식하기에 좋은 조건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과 질환에 대한 사전지식을 갖고, 조금만 조심 한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다.

우선 여름에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유행성 결막염은 전염성이 아주 강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질환은 사람이

이 아직 없다. 병의 호전은 주로 환자 자신의 면역성에 달려있기 때문에 눈병에 걸렸을 땐 잘 쉬는 게 약이다. 따라서 병원에서는 병의 경과기간을 단축하고, 2차 감염을 막고 증상을 덜어주는 치료를 하게 된다. 특히 눈병 초기에 아무 안약이나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스테로이드 안약을 함부로 사서 사용하는 것은 바이러스 활성을 높여 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 보통 2~4주 정도 지나면 별 부작용 없이 완치되며 드물게 각막혼탁이 수개월씩 오래가면서 뿌옇게 보일 수 있다.

전염성 눈병이 유행할 때는 외출 후 손을 깨끗이 씻고 눈을 만지지 않도록 해서 주의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다. 일

여름 단골 눈병, 올해는 피해보자

많은 곳에서 감염되기 쉬운데 공기로 전염되지는 않는다. 손이나 수건, 생활용품 등 가정과 직장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를 통해 쉽게 옮겨진다. 눈곱 같은 분비물을 손으로 비비다가 전염되기도 한다. 열이나 소독약에도 잘 살균되지 않기 때문에 수영장, 목욕탕 같은 데서도 전염될 수 있다.

또 하나, 흔한 눈병 중의 하나가 아플로 눈병이라는 급성 출혈성 결막염이다. 이 눈병은 지속기간이 유행성 결막염보다는 짧지만 1~2주정도 간다. 결막염은 특징적으로 빨갛게 출혈이 있기 때문에 놀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니다. 흔한 증상으로는 눈이 붓고, 충혈되고, 눈물과 눈곱이 지저분할 정도로 많이 간다. 대개 한쪽 눈에 먼저 나타나서 다른 눈으로 옮겨가며 먼저 발병한 눈에서 증상이 더 심하다. 치료는 감기와 마찬가지로 특효약

안약이 있으면 아무 안약이나 함부로 넣지 말고 전문의의 진단부터 받는 것이 중요하다. 치료와 함께 충분한 휴식, 영양 섭취를 하고 음주, 과로를 삼가는 것이 면역성을 키우는 게 도움이 된다.

눈을 깨끗이 세척한다고 생리식염수를 넣는 사람도 있는데 오히려 오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니다. 가짜 중 환자가 있다면 수건 겹 등 개인 위생품을 따로 사용하고 눈병을 앓고 있는 환자는 눈꺼풀이나 눈썹에 붙은 분비물을 손으로 직접 닦거나 눈을 만지지 말고 면봉으로 제거하고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는다.

안대는 오히려 세균을 증식하게 하므로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 부종이나 통증이 심할 때는 냉온찜질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

〈광주안과 원장〉

기고

강점동



사람이 생명을 유지함에 있어서 밥을 먹지 않고도 5주를 견디지만 물을 안 마시고는 5일 이상을 견디지 못한다고 한다. 그런 연유로 먹는 물을 가르켜 생명수라고도 한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 될 뿐 아니라 우리의 목을 적셔주고 마음에 여유를 가져다주는 소중한 자산이다. 우리는 이러한 물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잘 알고 있지만 막상 맑은 물이 수도꼭지까지 오기까지 어떠한 경로를 거치는지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현재, 전남 지역은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주담담관리단에서 관리하는 주담본담과 조절지담(상사담)에서 물을 공급받고 있다. 광주광역시를 비

0%에 비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이렇게 댐 상류에서 하수처리를 거치지 않은 오·폐수들이 댐내로 유입되어 저수지 수질이 악화되면, 정수처리과정도 복잡해지고 처리에 소요되는 약품의 종류나 양도 많아지는 등 결과적으로 수도물 생산과정의 효율저하와 비용증가를 가져오게 되며 결론적으로는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셈이다.

현재, 주담담의 수질등급은 연평균 상수원수 2급수 상태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이나, 하절기에는 집중되는 강수량이나 조류발생 등으로 인해 일시적 3급수 상태를 보이고 있는 등 지속적인 수질개선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댐 상류 하수처리

생명의 근원, 물

롯하여 목포시, 나주시, 화순군 등 4개 시·군은 주담담에서, 그리고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보성군, 고흥군 등 5개 시·군은 조절지담에서 용수를 공급받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주담담과 주담조절지담에 저수된 물을 각각 정수장으로 보내고, 이곳에서 고도의 정수처리과정을 거쳐 우리나라의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수도물을 생산하고 있다.

주담담관리단은 지자체, 유관기관들과 함께 전라남도 130만 도민에게 양질의 상수원 공급을 위해 지금까지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뚜렷한 수질개선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상류지역의 하수처리율이다. 현재 주담담 상류지역의 하수처리율은 46.9%로 전국 평균 83.

장 확충은 근본적인 오염원을 차단하여 수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이며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류지역 주민들 및 관련기관의 인식의 전환과 적극적인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리라 본다.

또한 축산폐수, 공사장 등 비점오염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잠재오염원의 사전유입을 차단해야 하며, 동시에 댐내에서도 지속적인 수질개선 저감 사업을 추진하는 등 댐내와 상류 유역권을 통합한 종합적인 수질관리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아무쪼록 주담담의 수질이 개선되어 현재 주민은 물론 후손들에게 깨끗한 물을 고스란히 물려 줄 수 있도록 지역주민, 단체, 지자체를 비롯한 모든 사람과 기관이 한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담담관리단 운영팀장〉

복잡한 제도 탓에 순수 모금 활동 제약 받아서야...

우리 직장에서는 1년여전부터 여성 동료들끼리 장사모(장예인을 사랑하는 모임)를 만들고 모 장예인 보호시설을 정기적으로 찾아가 자원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최근 수술이 필요한 장예인을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찾다가 인터넷 카페에 회비와 함께 독지가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청한다는 내용을 띄우기로 했다.

그런데 이런 순수한 모금활동이라 하더라도 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에게서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계획을 취소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을 핑계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이버 모금꾼들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규정 때문에 순수한 봉사활동 단체들의 활동이 위축돼서는 안된다.

물론 사전에 각종 서류를 만들어 제출하면 된다고 한다. 모금계획서를 비롯, 관련기관 추천서·자산과 신용도와 관련된 각종서류 등 제출해야 할 서류도 많다. 얼마나 번거로운가.

제도가 융통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임원빈·광주시 광산구 진곡동

일부 택시운전자 휴대전화 습득시 사례금우구 문제있다

현직 경찰관이다. 얼마전 경찰서에 온 민원인이 택시를 타고 오던 중 택시안에 휴대전화를 두고 내린일이 있었는데, 분실된 휴대전화로 걸려보니 택시 운전사가 매우 못마땅한 어투로 핸드폰을 그냥은 못가져다 주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경찰관 신분은 밝히고 근처 지구대에 가져다 주기를 사정했다.

문제는 휴대전화를 습득한 일부 택시운전자들이 노골적으로 3~5만원권을 사례금으로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일을 당했다는 민원인들도 꽤 있다.

택시 기사들에게 혹시나 휴대전화를 습득하게 되면 인근 경찰서 지구대나 치안센터로 가져다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냉정히 말하면 사람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한다면 형법상 ‘부당이득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모든 택시 기사들이 그러는 것은 아닌데도 일부 기사들 때문에 전체 택시 기사들이 욕을 먹어야 되겠는가.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줬을 때 물건을 되찾아 가는 주인은 고마움을 잊지 않을 것이다. ▲차철호·인터넷독자

Table with 2 columns: 光 卍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